# 한 번지에 20여 세대 위장전입

## 지방선거 앞두고 기승… 공터·마을회관에도 주민등록

### 광주시·자치구 1천세대 2천여명 적발 전출조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법도 다양했다. 하나의 번지에 무려 20여세대가 주민등록하거나 공터나 마을회관에 등록된 경우까지 있었다.

28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22일 간 광주에서 거주하는 52만3천242세대 중 의심세대 5만8천62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남구·북구 등에서 위장전입한 세대는 모두 1천2세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천573명이 자신이 실제 거주한 곳으로 다시 전출조치 됐다.

시는 광산구를 포함하면, 1천500세대, 2천명 이상이 실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동일 호수 내 3대 이상,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온라인 전입세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같은 결과는 올 초 9만2천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적발된 1천세대, 1천500명을 30%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자치구별 적발 세대수는 북구 2만7천845세대 중 399세대(657명), 동구 1만3천34세대 중 297세대(475명), 서구 1만7천170세대 중 162세대(228명), 남구 1만6천766세대 중 144세대(213명) 등이다.

위장전입을 할 때 주로 사용된 방법은, 같은 번지 내에 3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체 1천2세대 중 무려 94.3%에 해당되는 945세대가 적발됐다.

하나의 번지에 무려 20여 세대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 공터나 마을회관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7건에 달하는 등 위장전입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위장전입자 중 상당수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적발된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는 5개 자치구 및 92개 동 주민센터가 참여했으나, 조사대상에 비해 기간이 짧고, 인력도 부족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인지 이번 조사에서는 올 초와 지난해 말보다 위장전입 사례가 더 늘어났다"며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위장전입이 만연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사위등재 및 허위날인죄)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 180일 전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교육계 청렴도 우리 부부 손에 달렸어요"

류재순 감사관 유영근 감사관

### 도교육청 류재순·시교육청 유영근씨 부부

### 교육청 인사서 감사 담당관으로 함께 발령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의 내년 1월 1일자 인사에서 류재순(57·전남도교육청 의사과장), 유영근(여·54·광주시교육청 교육협력관)씨 부부가 '청렴'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 함께 발령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7년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서 개청 이래 최초 부부 서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름만으로 봐선 남녀 이름이 바뀐 듯 보이지만 류재순과장이 남편이고, 유영근 협력관이 아내다. 성도 비슷해 문화 류씨인 류 과장은 류(柳)를, 강릉 유씨인 유 과장은 유(劉)를 성으로 쓴다.

시·도 교육청의 내년 1월 1일자 발표 시기가 각각 달라 유 협력관이 지난 24일 먼저 인사 발령을 받았고, 28일에는 남편인 류 과장이 임명됐다.

류 신임 감사관은 전남지역 교직원 2만4천여명, 유 신임 감사관은 광주지역 1만4천여명의 청렴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된다.

평소 강직하고 묵묵히 업무를 챙기는 남편과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아내가 이번 인사에서 '감사관'이라는 같은 중책을 맡은 만큼 찰떡궁합으로 양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기대섞인 평가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느끼는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담은 다소 차이가 있을 듯 하다. 올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전남은 중상위권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지만, 광주는 반대로 최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남편 류 감사관은 "청렴도 평가에서 시·도교육청의 순위가 매겨지는 만큼 아내와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고, 아내 유 감사관은 "남편과 '청렴'이라는 공통 주제로 자주 대화하고 좋은 정보는 서로 교환해 양 시·도의 청렴도가 동반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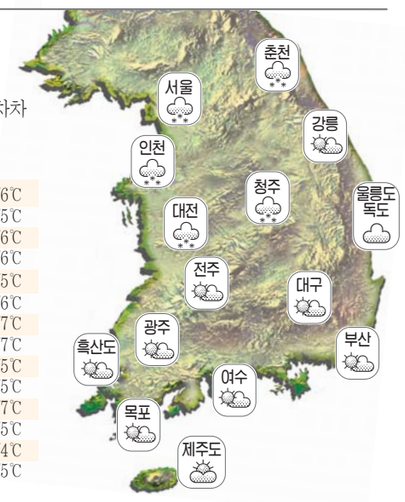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7시 40분 해짐 17시 29분 달뜸 14시 46분 달짐 04시 47분

**당분간 추워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 | | |
|---|---|---|
| 광 주 | 맑은뒤 흐림 | −6/6℃ |
| 목 포 | 맑은뒤 흐림 | −3/5℃ |
| 여 수 | 맑은뒤 흐림 | −2/6℃ |
| 완 도 | 맑은뒤 흐림 | −2/6℃ |
| 구 례 | 맑은뒤 흐림 | −9/5℃ |
| 해 남 | 맑은뒤 흐림 | −6/6℃ |
| 장 흥 | 맑은뒤 흐림 | −6/7℃ |
| 고 흥 | 맑은뒤 흐림 | −6/7℃ |
| 순 천 | 맑은뒤 흐림 | −5/5℃ |
| 영 광 | 맑은뒤 흐림 | −7/5℃ |
| 진 도 | 맑은뒤 흐림 | −4/7℃ |
| 전 주 | 맑은뒤 흐림 | −7/5℃ |
| 남 원 | 맑은뒤 흐림 | −10/4℃ |
| 흑산도 | 맑은뒤 흐림 | 1/5℃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먼바다 | 남서~서 | 0.5~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먼바다 | 남서~서 | 1.0~2.0m |

| 체감온도 | 동파지수 | 뇌졸중지수 |
|---|---|---|
| 관심 | 보통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1.5~2.5m |
| 먼바다 | 남서~서 | 2.0~3.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1.0~2.0m |
| 먼바다 | 남서~서 | 1.0~2.0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12:04 --:-- | 04:45 17:48 |
| 여수 | 07:15 19:17 | 00:32 13:26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30(수) | 31(목) | 1/1(금) | 2(토) | 3(일) | 4(월)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1/2 | −5/1 | −5/4 | −2/4 | −2/5 | −1/5 |

# 정기인사 4일 늦춰져…

### 전남도교육청, 서기관 1명 승진 기회 놓쳐

전남도교육청이 정기인사를 예년에 비해 나흘 늦추면서 서기관 1명이 승진할 기회를 놓쳤다.

전남도교육청은 28일 단행된 내년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조기선 교육정보행정담당사무관과 김재원 용도담당 사무관 등 2명을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켰다.

서기관 승진 1순위자인 조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발령이 났고, 2순위인 김재원 사무관은 고급간부과정 교육자로 파견된 뒤 복귀하면 서기관으로 발령이 나게 된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4년전부터 매년 3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1순위자만 발령을 내고, 나머지 2, 3순위자는 교육 파견을 보내왔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서기관 승진 교육파견자가 1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교육시행 주체인 교과부가 지난 26일 자 공문을 보내 서기관 정원의 10% 이내만 교육 파견자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기관 정원이 14명인 전남교육청은 1.4명이 해당 돼 결국 1명으로 줄었다. '사사오입'을 해도 2명이 되기는 역부족이지만 수년간 입었던 인사특혜(?)가 26일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바뀐 탓이다.

반면 광주시교육청 등 26일 이전 인사를 단행한 교육청은 예외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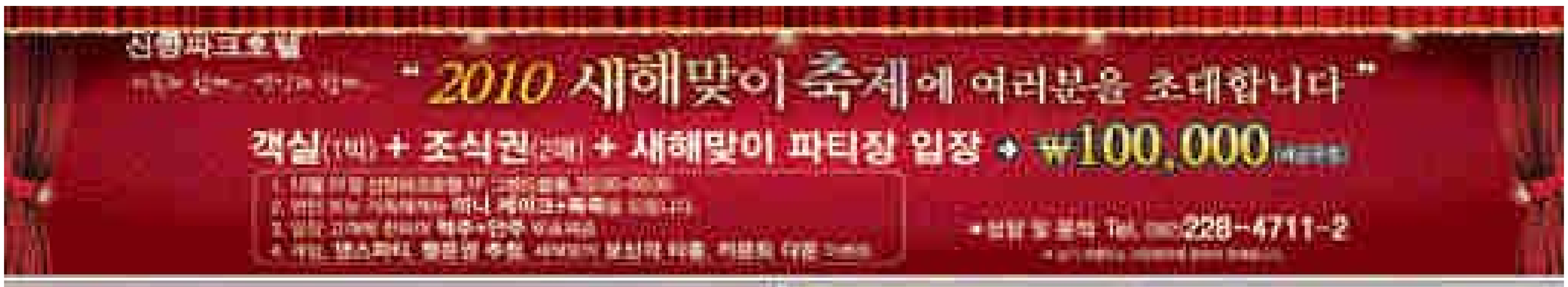
# 수업료·입학금 2년째 동결

### 광주시교육청, 고등학교·공립유치원 대상

광주시교육청은 28일 "내년도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올해 광주시내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는 인문계가 134만8천800원, 전문계는 130만9천200원이며, 공립유치원은 단설이 28만5천600원, 병설은 25만9천200원이다.

입학금은 고등학교가 1만7천200원, 공립유치원이 3천400원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확대, 중·고교생 수업료 등의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9억원을 늘려 127억원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제로화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전남도교육청도 수업료 등의 동결을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